

# 광산구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 개최

36주년 맞은 6·10민주항쟁 기념  
신창동 주민·청소년 함께 참여  
이한열 OX퀴즈·사진전 등 진행



광주 광산구 신창동 주민과 청소년들이 지난 10일 36주년을 맞은 6·10민주항쟁을 기리는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는 신창동 주민과 청소년들이 지난 10일 36주년을 맞은 6·10민주항쟁을 기리는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산구 신창동 역사문화공원과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광주진흥고등학교에서 펼쳐진 이번 문화제는 6·10민주항쟁과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신창동 주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진흥고를 비롯한 6개 학교와 청소년이 함께 마련했다.

'이한열 OX 퀴즈', '인권 명함 만들기' 등 참여 행사를 비롯해 역사적 장면을 생동감 있게 담은 '6·10민주화운동 사진전', '시민판화 작품' 전시가 진행됐다. 주방세계 다시 채우기, 심폐소생술 체험, 신창동 역사 탐방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알리는 부스도 운영됐다.

마을문화제 행사를 주관한 하명수 신창마을교육발전소 회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이한열 열사도 광주가 기억해야 할 오월의 역사"라며 "지역 학교와 마을공동체, 청소년이 주도해 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념식 행사에서는 진원석 광주진흥고 학생회장의 추념사와 함께 4·19합창단의 '그날이 오면' 합창 공연이 진행됐다.

박병규광산구청장은 "오늘의 민주주의는 43년 전 광주에서, 또 36년 전 국 각지의 시민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함성에서 피어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신창 마을공동체, 청소년의 실천이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존중과 상생의 가치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이후 1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민주국민장을 끝으로 고향 광주로 돌아와 망월동 5·18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김상철 기자

## 동구 '광주문화재야행' 서 배리어 프리 실시

수어 통역사·휠체어 전용석  
장애인 참가 환경 조성 운동

광주 동구가 오는 16일부터 열릴 광주 문화재야행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콘텐츠를 도입한다.

광주 동구는 장애인들도 참가하고 즐기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배리어 프리 콘텐츠를 준비해 모든 시민에게 열린 축제로 '광주문화재야행'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배리어 프리'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가 물리·심리적 장애물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운동·정책이다.

동구는 편의시설만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광주문화재야행 개최 기간(16-17일)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대표적으로 △개막 공연 휠체어 전용 좌석 △수어 통역사 배치 △장애아동을 위한 우선 개방 프로그램 '붉은벽돌학교' 등이다.

특히 서석초등학교 일원에서 펼쳐지는 '붉은벽돌학교(돌놀이터·야광놀이터·서

석 사진관)'는 오는 16일 장애아동에게만 우선 개방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17일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방문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 모두에게 즐길거리·볼거리·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편히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남구, 여름철 호우 대비 '박차'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여름철 집중 호우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사전 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열린 월중업무 보고회 자리에서 우기를 앞두고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인 양수기와 흡수성 마대 등 수방자재를 점검하고, 이달 중으로 모래주머니 확충 및 배치를 마무리해 재난재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침수 취약구역 관리를 비롯해 지하차도와 빗물받이, 배수구 이물질 제거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남구는 오는 13일 백운광장 주변 지하에 설치한 하수암거에 들어가 지장물 및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남구자원봉사센터 앞과 동아병원 등 백운광장 주변 7곳에 쌓아둔 모래주머니 1500개와 빗물받이 관리 상황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사진)

현재 관내에는 침수 대비를 위한 빗물받이가 6776곳에 설치돼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지난 달에 일제 점검과 함께 빗



물받이 위치 표지판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추가 점검을 준비하는 등 수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조만간 직원들의 재난상황 대처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집중 호우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국제양광장 주변 등 침수 취약지역 7곳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훈련에는 구역별 전담 인원인 남구 안전도시국 직원 35명과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2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관내 재난안전 관련 각 부서에서는 대형 공사장 주변을 비롯해 영산강 주변 수문, 급경사지 및 절개지 관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조기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강주비 기자

## 서구, 1인가구 다가치 커뮤니티 개소

광주 서구가 지난 10일 1인가구를 위한 '다가치 커뮤니티'를 개소했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양동 가족센터(서구 상무대로 1224번길 18) 나동에 문을 연 다가치 커뮤니티는 광주시 1인가구 특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참

여자들의 자유로운 모임 및 요리교실 등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 1인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 위해 매일 △알아두면 쓸데 있는 셀프디펜스, 정리 가 사람을 만든다, 노 케미 라이프, 우리

집은 조망맛집, 나에게 선물하는 따뜻한 밥상 등 '슬기로운 1인생활 맞춤형 교육'과 △공유주방을 활용한 '화목한 요리교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이 공간들을 활용해 1인가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 (062)714-3471 FAX: (062)714-3472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